

‘가족’과 ‘지역’으로 읽는 내방가사의 독법

백 순 철*

차 례

1. 논의의 출발
2. 기존 연구의 검토
3. 내방가사에 나타난 ‘가족’
4. ‘지역’으로 읽는 내방가사
5. 내방가사의 독법을 위한 제언

| 국문초록 |

이 글은 내방가사의 독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족’과 ‘지역’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였다. 먼저 가족은 혼인 이전의 ‘원가족’과 혼인 이후의 ‘파생 가족’으로 구분하고, 여성이 바라보는 여성과 가족, 가족이 바라보는 여성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식과 모습들을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내방가사에서는 주변 가족들이 여성들에게 가문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환기하거나, 여성 스스로 가문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원가족’은 주로 정서적 지지와 유대의 관계로, ‘파생가족’은 주로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둘째 내방가사에서는 가족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그에 대한 정감과 기억을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주 대상인 ‘원가족’은 자기 위안과 내면을 다스리는 동인이 되고 있다. 셋째, 내방가사에는 긍정과 부정, 비판과 온정의 감정이 경합하고 충돌하는 대상들도 나타난다. 이들은 주로 ‘파생가족’이며 양가적이고 혼효된 모습을 보여준다.

가족의 범주는 그 내포적 개념에 따라 외연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파편화된 개인으로서의 가족의 모습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존재로서의 가족의 관점을 설정한다면 여성 작자와의 관계와 위치에 따라서 정서와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을 좀 더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북과 안동이라는 지역에 주목하였다. 내방가사의 생산 및 향유의 공간이라는 의미 외에 전통적 질서와 유교를 근대와 개화의 반대편에 두고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구한말과 근대기 내방가사 작가들이 개화와 근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보여준 현실극복의 단호한 모습이나 시대에 대응하는 현명한 모습은 새로운 것이었다. 때로는 그들에게 억압이자 굴레이기도 했던 유학과 전통적 윤리가 여성들을 개화된 지식인이자 계몽의 주체로 만드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동과 경북 지역의 주요

*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행적과 성과를 통해 투철한 애국과 민족의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지역이 조선후기와 근대기 역사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혁신과 개혁의 모습들이 그 바탕이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 내방가사, 가족, 원가족, 파생가족, 지역, 경북, 안동, 혁신유림, 근대

1. 논의의 출발

이 글은 193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자료의 수집과 발굴, 창작 및 향유 과정의 현재성,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 여성성과 근대성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내방가사를 어떻게 새롭고 유의미하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문학작품 또는 작품군에 대한 해석은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의 경합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의미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갈래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한 접근의 가능성은 늘 잠재해 있는 것이다.

2022년 11월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많은 언론에서는 내방가사의 개념에 대해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한글을 사용해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문학 양식” 등으로 보도한 바 있다.¹⁾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통시대의 갈래로서 내방가사에 나타난 특성 외에도 근대기로 이어지면서 전통적 작법에 새로운 역사적 경험과 의식을 담아내는 양식적 특징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20세기 전후 제국주의 침탈로 인한 전통과의 단절,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이어진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여성들만의 생각과 삶을 미시적으로 담아낸 문학 양식이라는 점이 평가받은 것이다.²⁾

여기서 주목받아야 할 지점은 전통 시대의 갈래이면서도 새로운 문학 양식에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갈래 스스로 자기 갱신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근현대

1) 필자 역시 코리아 헤럴드 영자신문 기자로부터 내방가사의 갈래적 성격과 기록유산 등재의 의미 등에 대해 전화로 장시간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2) 고순희, 『근대기 역사의 전개와 가사문학』, 박문사, 2021; 고순희, 『해방전후 역사의 전개와 가사문학』, 박문사, 2021; 고순희, 『만주 망명과 가사문학』 연구·자료, 박문사, 2014; 백순철, 『구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에 이르기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창작과 향유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내방가사를 통해 인간과 시대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필요한 작업이다. 워낙 많은 논의 주제를 안고 있는 갈래이고 많은 작품 수만큼이나 이야깃거리도 많은 갈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방가사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내용 속에 많이 나타나는 대상이면서 내방가사 작품의 존재론적 의의를 말해주는 키워드로서 ‘가족’과 ‘지역’을 추출해 보았다. ‘가족’은 내방가사의 많은 작품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언급되는 대상을 총칭한 핵심어이다. 내방가사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많이 나타나며, 이는 작자의 현실인식과 세계관 형성의 주요한 근거이며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지역’은 내방가사에서 창작과 향유의 공간이자 작자(층)의 멘털리티와 경험적 서사의 배경이 된다. 내방가사를 통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배경과 역사 현실에 대응해 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내방가사 창작과 향유의 주요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지역과 안동은 전통적 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구한말과 근대기에 자기변혁을 도모하면서 내방가사를 사회적 소통과 현실인식 표출의 매개로 잘 활용한 지역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방가사는 이처럼 여성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창작·향유되면서 그 주제와 소재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갱신을 거듭해 온 갈래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미적 특질 등을 밝히는 것 외에도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인간들과 주어진 역사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전후하여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내방가사와 관련된 학술대회와 총서 간행 등이 이어졌는데, 이들 자료에서 내방가사 연구의 역사와 흐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참고가 된다.³⁾ 내방가사 관련한 주요 자료집 역시 위의 학위논문과 연구사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주요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 출판부, 1985.
 김사엽·최상수·방중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김성배 외, 『주해 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81.
 金素雲 篇, 『(諺文)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영천시 편, 『규방가사집』, 영천시, 1988.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 1~5, 국학자료원, 2003.
 이종숙 외,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이휘, 『소정가사 1~30』 60권 30책, 대보사, 2017.
 이휘, 『소정가사』 2집 12책, 대보사, 2017.⁴⁾
 전재강 편, 『경북내방가사-계녀가류·탄식가류』 1, 북코리아, 2016.
 전재강 편, 『경북내방가사-도덕가류·술회가류·풍류가류』 2, 북코리아, 2017.
 전재강 편, 『경북내방가사-송죽가류·영사가류·기타』 3, 북코리아, 2017.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 금강출판사, 1971.
 조애영·정임순·고단, 『한국현대내방가사집』, 당현사, 1977.

이상의 연구사를 간략히 일별해 볼 때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내방가사 연구사의 흐름을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초기 연구는 도남 조운제의 「영남 여성과 그 문학」⁵⁾과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내방가사 연구⁶⁾로부터 시작되어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계녀가류로 소개되는 유형들이다. 내방가사라는 가사 갈래의 발굴과 관심이 촉발된 유형이 혼인하는 ‘딸’들을 향한 어른들의 가르침이 담긴 가사라는 점은

3) 김윤희, 「내방가사 연구의 역사」,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국립한글박물관, 2020; 고순희, 「내방가사의 연구방향과 기록문학적 가치」, 내방가사전시연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12; 정기선, 「내방가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제1회 한국국학자대회 자료집, 2023.10.

4) 소정가사 2집 12책은 다음과 같다. 소정가사 별록1, 견문취류 속1~3, 견문취류 天·地·人, 한란화, 민들레, 음식소리 1:2, 전통의상 등이다.

5) 조운제, 「영남여성과 그 문학-특히 가사문학(歌詞文學)에 관하여」, 『신홍』 6, 신흥사, 1931.

6) 高橋亨, 「嶺南大家 內房歌詞」, 『朝鮮』 222, 1933; 高橋亨, 「嶺南の民謠に現れたる女性生活の二筋道」, 『京城帝國大學創立十周年記念論文集』 第6輯 文學篇, 京城帝國大學文學會, 1936, 大阪屋號書店.

그만큼 영남 지역 사대부 집안에 이러한 유형의 가사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다음으로 규방가사라는 개념의 설정과 더불어 자료집의 발간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까지 규방가사의 토대를 이루는 연구가 1970년대에 진행되었는데 권영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⁸⁾ 권영철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자료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⁹⁾ 선학들의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1990년대 이후는 내방가사의 여성성과 여성 의식, 근대성의 측면들을 살피는 연구들이 대거 제출되었다. 학술연구정보사이트(RISS)에서 내방가사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면 내방가사 주제의 박사논문은 대략 15편 정도가 확인된다. 1992년(이정옥)부터 2022년(정기선)까지 약 30년에 걸쳐 제출되었으니 평균 2년에 한 편 꼴로 박사논문이 나온 셈이다.¹⁰⁾ 석사논문은 100편을 상회하고 있어서 거의 매년 제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전시가 연구자들에게 내방가사 갈래는 여전히 매력적인 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왕에 수집된 자료 중에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작품들도 상당수 있고, 내방가사가 특정 문종을 중심으로 대거 창작되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역,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8)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1~2, 『효대논문집』 10~11, 효성여대, 1971-1972.

9)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 출판부, 1985.

10) 박사논문이 제출된 연도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백순철, 『閨房歌辭의 作品世界와 社會의 性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명, 「閨房歌辭의 形成과 變貌樣相 研究」,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정길자, 「閨房歌辭의 史的 展開와 女性意識의 變貌」,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중순, 「崔松雪堂 文學研究」,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박춘우, 「규방가사(閨房歌辭)의 글쓰기 방법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손영화,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 의식 연구: 놀이 기반 규방가사의 여성놀이문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원종인, 「서사적 규방가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조자현,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현실 및 세계인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최연,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허희수, 「장편규방가사의 서사적 양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은화, 「계남가사(溪南歌辭)를 통해 본 경북 내방가사의 향유 양상과 그 의미」,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보경, 「규방가사와 서사민요에 나타난 조선 후기 여성의 고난과 극복 양상」,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정철진, 「소정 이취 가사 연구: -수고본(手稿本)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정기선,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 내방가사에 나타난 ‘가족’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의 뜻을 검색하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전에 나온 신기철의 『새우리말큰사전』에서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¹¹⁾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결혼, 혈연 등의 관계가 매우 중시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머독(Murdock, George P. 1897~1985)은 “가족은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동, 생식 재생산의 특징을 갖는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다.”라고 가족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¹²⁾ 이러한 가족 개념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더해 좀 더 정교화된 가족의 개념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인 개체성과 반개체성, 즉 개인으로서의 ‘나’와 관계로서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생활공동체적 집단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정서적 단위로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지닌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³⁾ 물론 가족의 개념과 가족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라는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사회주의와 여성해방론에서 제기한 지배계급과 가부장제가 구축한 가상의 산물이라는 문제적 평가가 항상 경합의 과정에 놓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족의 형태와 범위를 흔히 핵가족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¹⁴⁾에서 좀 더 넓게 확장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가족은 곧 혈연에 의해 형성된 가족 형태 즉 원가족(family of origin)¹⁵⁾이 결혼, 출산, 입양 등의 과정을 통해 확대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 출산 가족(family of procreation)을 들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로 결합된 가족 중 자녀가 다시 결혼하여 만든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 대가족 문화에

11) 신기철 외, 『새우리말큰사전』 상·하, 삼성출판사, 1989.

12)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14~18쪽.

13) 김혜경, 앞의 책, 14~18쪽.

14) 최근에는 1인 가구를 독신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이를 최소 단위로 보기도 한다.

15)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을 말한다.

서는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에 형성된 가족 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가족 형태와 다른 이러한 모습은 바로 내방가사에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내방가사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을 혼인 이전의 혈연 중심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원가족(family of origin)'으로 설정하고, 혼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파생되어 형성된 가족을 '파생 가족'¹⁶⁾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양한 가족들을 향한 여성들의 인식과 정서, 또한 가족들이 인식하는 여성의 정체성은 내방가사의 주제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범주 설정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가족은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형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즉 여성들에게 혼인 이전의 '원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정(親庭)'이라는 공간은 '고향, 사랑받는 곳, 휴식과 놀이의 공간, 언로 개방 공간, 과거 또는 갈 수 없는 곳'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혼인 이후 파생된 가족 관계인 '시가(孀家)'는 '타향, 평가받는 곳, 노동의 공간, 언로 폐쇄 공간, 현재' 등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¹⁷⁾ 그런데 내방가사를 읽다 보면 특히 계녀가 같은 유형에서 혼인하는 여성들에게 강조되는 가족(가문)을 위한 기여와 희생은 주로 파생 가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원가족'인 친정 식구들의 모습은 정서적 교류와 지지가 중심이 되는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곧 여성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에서도 그 차이가 그대로 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두고 내방가사를 읽다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가문관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내방가사에서는 여성 주변의 가족들이 여성들에게 가문관리자로서의 자아정체성을

16) 파생 가족이라는 개념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넓은 범주의 가족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으로 좀 더 학문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derivational family*에 가깝다고 하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개념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17)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가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9쪽.

끊임없이 환기하고 교육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반면 여성 작자 스스로 가문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완수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한다.

유중교(柳重敎, 1832~1893)의 〈녀손훈사(女孫訓辭)〉는 영서지방의 계녀가로 사대부인 조부가 손녀를 위해 지은 작품이다.

[1] 네게 당한 쉬운말노 일용형사 적어너니, 규감소학 읽기전의 아직몬져 붓치보라, 동방이 발가겨든 눈씻고 이러느셔, 옷납고 자리것고 방쓸고 소세하라, 옷깃슬 바꾸염우이고 치머끈을 즐라미라, 각방의 문안호오디 소리를 나직이허라, 어른의 교훈되로 진심하여 익히거라, …… 잔신부름 하는틈의 녀공인덜 아니빅우라, 면화고루고 고치말기 길삼의 시작이오, 줌치짓고 보선김기 침선의 시작이라, 첫숨시 오작하냐 그런되로 익히거라, …… 일하기도 빅이라니와 몸가지기 어옥오렵다, 혀긋기전의 존되하고 썩세기전의 절빅여라, 어른이 출입할계 잊지말고 괴거허며, 무어슬 주시겨든 두손으로 밧느니라, 조부모를 뵈셔안져 부모의 존되아니코, 부모압희 뵈셔안져 형의 존되 아닛난다, 얼굴은 바루들고 허리는 곱게가지거라, 눈썹춤 추지말고 고기짓 하지마라¹⁸⁾

[1]의 작자인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는 49세(1880) 때 여아를 장손녀로 얻게 된다. 그리고 아이가 6세 되던 54세(1885) 때 이 가사를 짓게 되는데, 여아들이 어려서 가정에서 배우고 행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크게 일용행사, 여공, 언행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의복을 단정히 하며 목소리를 낮추는 등 일상적 예절을 가르치고, 혼인할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공에 해당하는 길쌈, 침선방적, 음식만들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반가 여성으로서 어른들에게 공손히 하고 언행에 주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가르치고 있다. 종결부에서 작자는 이렇게 하면 큰 사람은 못 되더라도 남들에게 개뻬지 취급은 받지 않게 될 거라고 서술하고 있다. 언젠가는 혼인하게 될 귀한 손녀가 가문의 관리자로서 모자람 없이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계녀가 유형은 작자가 대체로 가문 내의 남성 또는 여성 어른으로서 앞으로 혼인할 딸내들에게 가문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직된 유교적 이념이나 가부장적 이

18) 정재호, 「女孫訓辭考」,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204~215쪽.

데올로기의 전파보다는 원가족인 문중 딸내들에 대한 애정과 염려가 내용 구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가 식구들의 요구와 기대를 여성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스스로 가족(가문)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그 완수를 위한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남원윤씨(1768~1801)의 <명도자탄사(命道自嘆辭)>와 전의이씨(1723~1748)의 <절명사(絕命詞)>(1748)를 들 수 있다.

[2] 夜寒을 무릅쓰고 堵前의 獨立^헝여, 點檢平生^헝니 痛入骨髓로다, 人家禍患이 限量^헝미 이시리오마는, 吾家天崩之禍는 酷矣 酷矣로다, 偶然一病沉綿^헝여 一年을 辛苦하니, 源委가 已深^헝고 症情이 非輕^헝다, …… 神明이 不察^헝고 天遺禍殃 甚^헝실사, 生死 兩地의 疊疊遺恨 이내몸이 죽어져서, 白骨이 塵土된들 즈마 어이 이질스니, 光陰이 迅速^헝여 葬日이 다드르니, 靈柩를 붓드러 窮地의 葬^헝오니, 生則同禍를 못^헝여시니, 卽地의 죽어져서 同穴이 나의 至願이라……¹⁹⁾

[3] 屈三閭 忠魂도 魚服을 칩왔고, 太白의 文章忠臣도 水中에 孤魂이요, 伍子胥 鷗夷도 楚水中의 쓰져시디, 洋洋 流水 여^ㄴ치 宛然타다, 내 쏘^헝 츠지오니 天地 初判時의, 이 몸을 삼기기는 名節을 내미로다. …… 슬푸다 堂堂^헝 天倫이 속절업시 긋쳐지고, 河海^ㄴ든 恩愛는 一夕의 虛事되니, 九原의 도라가는 녀시 압히 업소도다. 저즌 몸 춘 물 우히 水風이 冷淡^헝디, 夜月이 蒼蒼(蒼蒼)^헝여 月色 淒涼^헝다.²⁰⁾

[2]의 작자인 남원윤씨는 4살 때 모친을 잃고 18세 때 한진구(韓鎭九)에게 시집을 가는데, 10여 년 후 남편이 죽게 되고 남편 사후 100일만에 자결을 한다. 인용문에서는 남편의 죽음을 '천붕(天崩)'이라고 표현하고 남편을 따라 함께 묻히고 싶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슬픔이 매우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자결하기 10일 전 9통의 유서와 이 가사를 남긴다. 이 작품은 시가의 가문에서 그녀의 행장을 기록하고, 유서를 한문으로 옮기고 가사를 필사하여 책으로 엮은 『애종용(哀從容)』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인 여성 스스로 가문 관리자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완수하고 스스로 남편을 따라 자결한

19) 이상보, 「명도자탄사 소고」, 『명지어문학』 8, 명지어문학회, 1976; 진동혁, 「공인 남원윤씨의 명도자탄사 연구」, 『논문집』 19집, 단국대학교, 1985, 7~36쪽.

20) 이상보, 「14. 절명사」,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128~130쪽.

작품으로서, 가문발전을 위해 희생한 여성을 대대로 추앙하기 위해 가승본에 수록한 것이다. 작자인 남원윤씨가 한 가문을 훌륭히 관리했을 뿐 아니라 그 가문발전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가문에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의 작자인 전의이씨(1723~1748)는 1748년 <절명사(絕命詞)>를 짓는다. 그녀는 영조 22년(1746) 23세에 현풍곽씨 가문의 곽내용(郭乃鎬, 1723~1747)에게 시집가서, 영조 23년(1747) 24세 때 신행전 6개월 만에 남편의 죽음을 맞는다. 인용문을 보면 하늘이 이 몸을 만든 것이 명분과 절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나 있고, 친정아버지의 만류로 연명하다가 친정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절망에 빠진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작자인 전의이씨는 영조 24년(1748) 9월 26일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25세의 나이로 자결하게 된다. 이 작품 역시 아버지에 대한 도리와 가문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가문관리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외에 18세기말 유사춘(柳思春)의 아내 정부인 연안이씨(1737~1815)의 두 작품 <쌍벽가(雙壁歌)>(1794, 정조18)와 <부여노정기(扶餘路程記)>(1800, 정조24)를 보면 자식들의 현달을 통한 가문발전에 대해 여성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에 급제한 아들과 조카를 대동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화자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사물들마저 모두 가문의 경사를 축하하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²¹⁾ 또한 아들이 부여 관아에 부임하는 장면에서 성대하게 환대받는 장면에서 한껏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도 나타난다.²²⁾

21) ……거러넘던 문경식지(聞慶鳥嶺) 남여(藍與)로 완보(緩步)하니, 형데홍픽(兄弟紅牌) 쾌(快)홀 시고 십이연봉(十二連峰) 성은(聖恩)일다, 천암만학(千巖萬壑) 돌너보니 우로지침(雨露之澤) 한(限)이엿다, 삼춘(三春)의 오색꽃치(五色花) 곤메계지(昆弟桂枝) 추종(追從)호고, 전세후세(前世後世) 칠푼(彩雲)이요 칠니말니(千里萬里) 화풍(和風)이라, 축지법(縮地法)얼 즈로즈로 가향(家鄉)이 거의로다.…… (이상보, 『65. 쌍벽가』,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498~503쪽).

22) ……선경을 얼핏보아 부아로 도라드니, 향기에 생명거동 호수입식 책전립이, 일안에 기묘흔디 삼변에 현알하네, 오리정 날븐뜰에 끝벌리 모이난 듯, 전후사령 까지웃과 급창의 청천익은, 개암이 찾는곳에 오색이 어리엿네, 삼현 육각32)은 천지가 진동하니, 백제적 도읍이라 오히려 풍역일다, 수문을 크게열고 내아로 피실적에, 럽점성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하디, 완완히 행보호여 청중에 올라서니, 삼중석 만화방을 이리저리 노앗난데, 좌호여 안즌후에 옛일을 상상하니, 명주의 조흔풍경 아시에 즐겼드니, 유양의 조흔의식 실토록 호여보고, 황제에 조흔성덕 중토록 입었드니, 부강에 조흔맛을 노래에 다시보니, 아해야 술부어라 취토록 마시리라. 한태부에 남공언이 이갓지 즐겁터냐.…… (권영철, 『부여노정기연구』, 『국문학연구』 4, 효성여대, 1973).

작자는 가사를 통해 장자인 유태좌(柳台佐)와 조카 유상조(柳相祚)의 과거 급제를 기리고, 장자의 부임지에 동행하는 기쁨을 짙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친가나 시가 모두 지위 높은 가문의 반열에 위치해 있었으나 그 경제적 처지는 크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작자는 혼인 후 바로 시가로 들어갈 형편이 못되어 친정에서 장자를 낳아 키워서 시가로 들어갔던 것이다. 또한 시가에서는 집안 살림뿐 아니라 농사까지도 감당하며 치산에 힘써야 했는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고생이 매우 지난했음을 알 수 있다. 작자는 이 가사들을 통해 자식의 현달을 통한 가문 회복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매우 컸음을 대내외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혼인 이후의 삶에서 가문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실현해 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가족(가문)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자신감과 주체 의식을 표출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좀 더 구분해서 보면 혼인 이후 형성된 '파생 가족'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원가족'은 자아정체성의 근원을 확인하는 정서적 지지와 유대의 관계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방가사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 중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간절한 그리움과 회상의 대상으로서 가족을 소환하고 그에 대한 정감과 기억을 표출하는 모습들이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가족들과의 격절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 친정과 멀어지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일이다. 여기서는 혼인이라는 개인적 문제보다는 민족적 시련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이 창작의 동인이 된 작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유림인 석주 이상룡(李相龍, 1858~1932)의 아내 김우락(1854~1933)의 <조손별서>와 손녀의 답가인 <답사친가>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남편을 따라 만주로 망명한 김우락 여사가 함께 오지 못한 만손녀 유실이에게 편지글의 형식으로 쓴 것으로, 손녀에 대한 기억과 미안함,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²³⁾ 후자는 조모의 가사에 대한 손녀의 답가로 그녀가 21세인 1914년에 창작한 것으로, 조모와 부모 등 친정가족들에 대한

23) 고순희,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고증적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박지애, 「가사에 새겨진 망명의 삶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조손별서〉와 〈답사친가〉-」, 『안동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그리움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4] 인력으로 어찌하랴 국파군망 이웨일고, 신민의 아버지통 일월이 무광하다, 추로동방 군자국이 호중천지 되단말가, 천년만년 우리나라 억만세지 장춘으로, 요순같은 어진인금 계계승지 나실적에, 여일지승 여월지향 여즉포위 하시기를 태악같이 믿었더니, 의관문물 예의지풍 수상부평 되어잇고, 삼천리 저강산이 타국압제 되었구나, 차회라 경향갑축 우리명문 고절청심, 우리왕부 학행도덕 위국성심 없을손가, 기유년 동시월에 낙미지액 당하시고 누옥고초 지나시니, 대장부의 충분으로 강개지심 참을것가, …… 말리의 이향회포 증가백출 하는구나, 보고져라 보고져라 조상부모 보고져라, 가고져라 가고져라 부모좌측 가고져라, 나래돋친 학이되어 날라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 명월되어 비취어서 보고지고, 낙낙장송 바람되어 불러가서 보고지고, 벽사장천 세우되어 뿌려가서 보고지고, 한강수 압록강에 망만중류 창파되어 흘러가서 보고지고……²⁴⁾

[4]의 인용된 부분을 보면 작자는 나라를 잃어 삼천리강산이 타국의 압제에 시달리게 된 상황을 백성들이 해와 달을 잃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조부인 석주 선생이 경술년 전에 이미 화를 입고 비분강개의 심정으로 망명을 택하게 된 사정을 어린 나이에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집안 어른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대목은 익숙하게 잘 알려진 ‘보고지고 타령’을 가져와 그 짙진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김우락 여사의 또 다른 가사 〈간운사〉는 대상을 달리하여 고국의 여자 형제들에게 그리움과 만남을 희구하는 마음을 쓴 것으로, 역시 편지글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²⁵⁾ 김우락의 가사와 같이 만주 망명의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 주고 받은 다른 가사 작품들도 있다. 서간도로 떠나는 딸을 이별하면서 어머니가 지은 〈송교행〉은 딸을 낳아 시집보낸 일과 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있고,²⁶⁾ 이에 대한 답가로 지은 이호성의 〈위모사〉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조국의 역사 현실에 대한 냉정한 자각과 남녀평등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²⁷⁾

24) 권영철 편, 「3, 사천연모류 8) 답사친가」,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89~195쪽.

25) 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한경희, 「김우락 가사 고찰」, 『한국지역문화연구』 11(1), 한국지역문화회, 2022, 44쪽.

26) 김동연, 「만주로 망명가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편지-안동권씨의 〈송교행〉-」, 『안동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고순희,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시거문화연구』 29,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거문화회), 2012.

이상과 같이 강렬한 그리움과 애정의 대상이 되는 '원가족'은 현실의 고난과 결핍을 극복하고 자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호명과 끊임없는 회상은 실제 소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방가사에 나타난 가족의 세 번째 양상은 비판과 온정, 긍정과 부정, 수용과 거부의 감정들이 충돌하고 경합하는 대상의 모습들이다. 대체로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파생 가족'의 대표적인 존재인 남편과 함께, 남편의 부모와 형제들과 같은 시가(姪家)의 식구들을 들 수 있다.

근대의 가사라고 할 수 있는 <시골식씨설은타령>을 보면 도시에 나가 신학문을 하다가 신여성에게 반한 남편에게 이혼당한 구여성의 처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²⁸⁾ 이 작품에는 남편에 대한 기대와 원망이 교차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이중적 감정의 혼돈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의식의 계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규방가사(신변탄식류)』(권영철, 효성여대출판부, 1985)의 「여자탄」을 보면 시대 식구들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며느리를 아껴주는 사려 깊은 시부모의 모습도 나타나고, 시집살이의 육체적 고난을 가중시키는 시동생과 시누이들의 모습도 나타난다. 시가 식구들에 대한 인식이 단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편이나 시가 식구들은 때로는 따뜻한 기억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힘든 시집살이로 인한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양가적 감정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

27)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8) …… 나의마음 서울낭군 그리워라 그리워라, 뒤문밖 뛰어나가 얼스얼얼 안아줄구, 말성만은 눈 의이목 두렵기 흥날갓드, 푸른수양 목단춤에 오린만에 그리던님, 만나기는 만나스나 어이그리 쓸쓸호노, 쓸은지 반가운지 눈물만 쓰다질 듯, 여름하늘 야송경의 달빛조주 흐릿기, 염천월로 오시노라 얼마는 피로한지, 이부즈리 누운침로 그양고만 잠이드니, 구곡간장 김흔흔을 말함마디 못아뢰고, 어설픈흔 식벽빚이 어느듯 흥에비쳐, 썸이양 춤인양 청천벽낙 나리는 듯, 이혼이란 무슨변고 이혼이란 무슨일고, 식집온후 칠팔연간 흥히두히 허다세월, 씨나다나 흥말엄시 누를위히 기도렛소, 춘풍도리 꽃필씩와 추우음풍 입질씩이, 눈물로 벗습스마 압흔기슴 식여왔기, 어서어서 세월가서 습연이란 세월가면, 우리집 줄업맛고 짜스가정 흥렸더니, 너기슴이 그리든 썸 아츰플이 이슬니고, 뜻아니기 오월비송 연화꽃의 이원일고, 나도어려 남과가지 학교가여 배웠드면, 이런변고 업슬겨슬 후회흔들 슬곳있나, 베플씩는 지나갓기 어릴씩는 지나갓기, 썸가고 남 버리니 나의팔주 어이할고…… (권영철 편, 「2, 신변탄식류 4) 시골식씨설은타령」,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12~117쪽).

이 나타난다. 혼인 이후 형성된 파생 가족이기에 결혼 생활의 경험에서 어떤 경험적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정서적 반응과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4. ‘지역’으로 읽는 내방가사

조선후기에서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내방가사 창작과 향유의 주요 지역은 ‘경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기에는 일제의 압제를 피해 만주로 망명을 가게 된 안동 지역 문중의 여성들에 의해 일련의 작품들이 창작되면서 ‘안동’이 내방가사의 주요 산실이 된 지역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경북 그리고 안동을 중심으로 내방가사 창작이 집중된 것은 내방가사 작자(층)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이 지역 특유의 역사적 배경과 향토적 생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 지역 유림들의 정치적 태도와 세계관이 가학의 배경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하고 소통하는 여성들 역시 자각과 계몽의 정도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방가사의 가장 초기 작품으로 알려진 『잡록』 소재 〈반조화전가〉는 경북 안동을 배경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강한 남성 선망의 표현이 나타난다.²⁹⁾ 이는 여신 한탄의 소극적 체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양과 학문적 수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작자는 진성 이씨 가문인 이중실(李重實, 1714~1781)의 처 안동권씨(1718~1789)로서, 작자의 친정 육촌인 흥원장의 〈조화전가(嘲花煎歌)〉(1746년)가 화전놀이가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지은 것이다. 여기서 작자인 안동권씨는 친정과 시가의 가문의 위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시가인 진성 이씨 가문은

29) ……어와 애들올샤 너즈되미 애들올샤, 우리 일신 남즈런들 이 아니 쾌홀년가, 느즌 봄 곤호 날의 빈 독을 글디 말고, 춘당디 알성시에 일필 명작 혀여내여, 계화 청삼 빗난 등의 열친광(너) 혀련만은, 하늘히 무디혀여 너신으로 마련혀니, 아모리 애들은들 곱쳐 다시 되일손가, 심규의 드러안자 옥리로 봉위되여, 녀형을 뽀게 닷고 방적을 힘쁘더니, 동군이 유정혀여 삼스월을 모라 오니, 원근 앞에는 홍금당을 틀어잇고, 춘변의 도리화논 가디마다 식을 썩여, 사창안 부녀 흥을 제 혼자 도도논디, 도로혀 생각혀니 인심이 이만이라. ……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영남 지방 전체에서 세거하여 살았으며, 갑술환국 이후 남인세력이 실각한 이후에도 꾸준히 과거에 진출하여 영남의 명문가가 된 문중이다.³⁰⁾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사림의 거두로 추앙받은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절대적이 되어서 영남에서 매우 중요한 문중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경북에서도 안동시는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수백 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로 일컬어진다. 내방가사 작자인 여성들의 친정과 시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작자의 사회적 위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멘털리티와 세계관 형성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작자가 터득한 국문에 대한 소양과 여성적 경험, 친정의 가학의 전통, 시가 문중의 사회 정치적 활동 등이 맞물려 내방가사의 주제와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방가사 창작은 20세기 들어서도 계속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가문들이 조선후기 보수유림에서 시대의 변화를 깨닫고 혁신유림으로 거듭난 문중들이라는 점이다.³¹⁾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국제사회의 개항 요구가 커지면서 성리학적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기존 체제를 옹호하고 서구의 문물을 배척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1881년 경상도 예안의 유생 이만손(李晩孫, 1811~1891)을 필두로 하여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는데, 이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이 청나라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퍼뜨린 것을 비판하고 정부의 개화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으로 전개된 의병운동은 1900년대 들어 위축되었고, 1895년 이후 근대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근대학교들이 설립되자 보수유림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30) 진성이씨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眞寶)현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고려 말기에 시조로부터 계보를 시작하고, 조선 초기의 불천위 조상을 탄생시키면서 가계를 온전히 승계할 수 있었다. 시조로 석(碩)을 모시고 있다. 진보 이씨라고도 한다. 아들인 자수(子脩) 계가 고려 말 사족이 되면서 안동으로 이주하여 안동 또는 영주·예안(禮安)파가 되어 이 3파가 주로 족보에 등재되었다. 퇴계 이황(1501~1570)을 배출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명가의 반열에 올랐다. (김문택, 「한국적 중종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 -진성이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보연구』 4, 한국계보연구회, 2013에서 발췌 요약함).

31) 이하의 논의는 아래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경자·김은혜, 「안동지역 근대교육의 전개양상-협동학교(協東學校)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12; 이계형, 「한말 안동지역 혁신 유림과 신민회의 상관성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한국근현대사학회, 2022 겨울호; 이계형, 「1910년대 전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안동 혁신유림의 역할」, 『만주연구』 33, 만주학회, 2022).

신문물의 수용과 교육 구국을 위한 노력이 민족주의적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이들이 혁신유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안동 지역 여러 문중의 재원으로 설립된 협동학교(協東學校)가 있다. 협동학교는 안동 지역의 대표적 유림인 석주 이상룡, 일송 김동삼, 류인식, 김대락 등이 주도하여 1907년 봄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재산과 여러 문중 재산을 모아 설립한 근대식 교육기관이다. 근대교육을 통해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중을 계몽하여 구국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혁신 유림들이 안동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여 세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혁신유림 문중의 일원들은 경술국치 이후 나라가 어려워지자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 서간도로 이주하게 된다. 이때 만주 망명 생활에 함께한 문중 여성들이 가사를 통해 고국의 가족과 친척에 대한 그리움, 독립운동하는 가정에 대한 자부심, 국권회복에 대한 열망 등을 표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김우락 여사의 〈해도교거사〉, 〈간운사〉, 〈조손별서〉, 〈정화가〉 등이다. 이 작품들에는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면서도 망명의 전후 과정에서 자각한 고국의 역사 현실과 독립에 대한 의지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가날프면서도 강인한 여성적 정감을 노출하고 있다. 김우락 여사 역시 안동 내앞마을 의성김씨 명문가 출생으로 친정과 시가 모두 협동학교를 함께 한 혁신유림 가문의 일원이다. 막내 여동생인 김락(金洛, 1862~1929) 여사 역시 독립운동가로서 〈유산일록〉을 지어 만주의 친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³²⁾

안동 이외에도 경북 지역에는 개화의 시기를 거치며 보수적 분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간 문중의 여성들이 내방가사의 주요 작가로 등장한다. 주요 작가로는 김천의 최송설당, 영양의 은촌 조애영, 대구의 소정 이휘 등을 들 수 있다.

최송설당(1855~1939)은 경북 김천 지역 출신이다. 민족적 육영사업가이면서 한시와 가사 창작에 뛰어난 문화예술가로 알려져 있다.³³⁾ 실제로 시문에 능하여 200여 수의 한시와 49편의 내방가사를 남기고 있다. 저서로는 『송설당집』 3권(1922년)이 있다. 그녀의 삶이 흥미로운 것은 1887년 후일 순헌황귀비가 되는 엄상궁을 만나 영친왕의 보모가 되어 이를 계기로 고종에게 상소를 올

32) 김윤희, 「안동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락의 가사 〈유산일록〉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22,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33) 김송순, 『崔松雪堂 文學 研究』, 景仁文化社, 2008.

려 가문의 신원을 성취하고, 왕실과 재야의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교육 구국의 근대적 정신을 자각하게 되는 극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 시절 여인 어머니의 유언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엄비가 진명학교와 숙명학교를 설립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최송설당은 부의 축적을 통해 가문과 지역을 위한 사회적 기여를 다짐하고 김천고 설립으로 이를 실천한 것이다. 가족과 가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매우 전통적인 정서인 데 반해, 지역사회와 학교에 대한 공적 기여의 의지는 근대적 의식을 노정한 것이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개화기 여성의 중층적 멘탈리티를 확인할 수 있다.³⁴⁾

다음으로 경북 영양 주실마을 출신의 은촌 조애영(1911~2000)이 있다. 은촌은 신여성이자 항일독립운동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10대 시절에 지은 작품과 노년에 들어서 지은 작품들이 『은촌내방가사집』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녀는 한양조씨 집성촌인 영양 주실마을에서 어린시절부터 가학을 통해 학문을 터득했고, 자라서는 서울의 배화여고를 나와 이화여전을 중퇴하는 등 신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녀의 아버지인 내은 조인석(乃隱 趙寅錫, 1879~1950)은 유학자이자 계몽운동가로 여성교육서인 『소녀필지(少女必知)』와 청년교육서인 『초독경편(初讀經篇)』을 편찬하여 유학적 생활과 상식을 담되 근대 사회의 변화한 학문과 생활의 면모들도 함께 전달하고자 한 인물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스스로 자결하였다.³⁵⁾ 은촌 조애영은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가학을 전수받고 서울로 유학와서 신교육을 받기도 하면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진보적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그 해에 이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현실적 문제의식을 노래한 <한양비가>와 <학생의거혁명가>가 있다. 이러한 은촌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자각은 영양 주실마을의 학풍과 한양조씨 문중의 가학, 서울에서의 유학생활과 학생운동, 해방과 한국전쟁 체험 등을 거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장 과정에서 내방가사에 대한 학습과 향유의 경험을 내면화한 작가는 노년에 접어들어 격변의 정치 시국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 역사 사회적 성찰과 전망을 자신에게 익숙한 갈래인 가사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³⁶⁾

34) 백순철, 「崔松雪堂 歌辭의 문체와 현실인식」, 『한국시가문화연구』 15,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35) 한경희, 「경북 북부지역 근대문학자들의 유학전통의 사유와 신념의 변화양상」, 『정신문화연구』 32(3)(통권 11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경북 지역 근대 내방가사의 생명력과 실존적 위치를 거론함에 있어서 대구의 소정(素亭) 이휘(李輝, 1931 ~) 여사를 빼놓을 수 없다. 소정은 전주 이씨로 1931년생이다. 경북 영천군 북산서당에서 중재(中齋) 이호대(李好大)와 경주 최씨의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조부는 낭산(朗山) 이후(李堧, 1870 ~ 1934)로 거유 곽종석(郭鍾錫, 1846 ~ 1919)의 문하에서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다. 그녀는 나이 19세 때 1949년 달성 서씨 집안의 목민(木民) 서상교(徐尙敎)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남편은 1942년 대구상업학교 재학중 태극단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독립지사이다. 유학적 전통이 강한 가문에서 성장한 데다 국가관이 남다른 남편과의 혼인은 그녀의 가사에 나타나는 국가나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외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내방가사의 독법을 위한 제언

내방가사의 창작과 향유의 전통이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년이 훌쩍 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강인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유사한 주제와 소재를 노래에 담아내면서도 끊임없이 변주되어 가면서 담당층의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 시대의 유교적 관념이 나타나면서도 현실과 역사에 대응해 가는 근대 이후의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장르가 대체할 수 없는 독자적 문예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글은 내방가사의 독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족’과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다양하게 호명되고 다양하게 그려지는 가족의 모습들을 혼인 이전의 원가족과 혼인 이후의 파생 가족으로 구분하고, 여성이 바라보는 여성과 가족, 가족이 바라보는 여성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식과 모습들을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성이 바라보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가족이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내방가사 작자인 여성들의 내면의 심연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경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

36) 백순철, 「은촌 조애영 가사의 문체와 여성의식」, 『한국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11.

론 여기서 여성인식의 기반이자 주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주는 그 내포적 개념에 따라 외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막연하게 파편화된 개인으로서의 가족의 모습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존재로서의 가족의 관점을 설정한다면 여성 작자와의 관계와 위치에 따라서 정서와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을 좀 더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북과 안동이라는 지역에 주목한 것 역시 생산과 향유의 공간이라는 존재론적 의미 외에 전통적 질서와 유교를 근대와 개화의 반대편에 두고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특히 구한말과 근대기 내방가사 작품들을 읽으면서 내방가사의 여성들이 개화와 근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억압이자 굴레이기도 했던 유학과 전통적 윤리는, 오히려 내부에서 스스로 자기변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들을 개화된 지식인이자 계몽의 주체로 만드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내방가사 작가들의 탄생은 근대의 세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교적 질서의 온전한 복원 속에서 근대적 변화의 수용이 진행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혁신과 개혁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투철한 애국과 민족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이해하면 지역에 입혀진 보수적 색채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_____,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 출판부, 1985.
-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 1~5, 국학자료원, 2003.
- 이휘, 『소정가사 1~30』 60권 30책, 대보사, 2017.
- _____, 『소정가사』 2집 12책, 대보사, 2017.
- 전재강 편, 『경북내방가사-계녀가류·탄식가류』 1, 북코리아, 2016.
- _____, 『경북내방가사-도덕가류·술회가류·풍류가류』 2, 북코리아, 2017.
- _____, 『경북내방가사-송축가류·영사가류·기타』 3, 북코리아, 2017.
- 高橋亨, 「嶺南の民謡に現れたる女性生活の二筋道」, 『京城帝國大學創立十周年記念 論文集』 第6輯 文學篇, 京城帝國大學文學會, 1936, 大阪屋號書店.
- _____, 「嶺南大家 內房歌詞」, 『朝鮮』 222, 1933.
- 고순희, 「〈조손별서〉와 〈답사친가〉의 고증적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1, 한국시
가문화학회, 2013, 35~62쪽.
(UCI : G704-001062.2013..31.012)
- _____, 「내방가사의 연구방향과 기록문학적 가치」, 내방가사전시연계학술대회 자
료집, 2021.12.
- _____, 「만주망명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107~134쪽.
(DOI : 10.17838/korcla.2010..37.004)
- _____, 고순희,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9,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화회), 2012,
33-66쪽.
- _____, 『근대기 역사의 전개와 가사문학』, 박문사, 2021.
- _____, 『만주 망명과 가사문학』 연구·자료, 박문사, 2014.
- _____, 『만주망명과 가사문학 연구』 연구·자료 편, 박문사, 2014.
- _____, 『해방전후 역사의 전개와 가사문학』, 박문사, 2021.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1)」, 『효대논문집』 10, 효성여자대학교, 1971, 9~68쪽.

- _____, 「규방가사 연구 (2)」, 『효대논문집』 11, 효성여자대학교, 1972, 225~284쪽.
- _____, 「규방가사연구 (3)-계녀교혼류를 중심으로-」, 『효대논문집』 14, 효성여자대학교, 1975, 9~129쪽.
- 김보경, 「규방가사와 서사민요에 나타난 조선 후기 여성의 고난과 극복 양상」,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윤희, 「내방가사 연구의 역사」, 『여성, 한글로 소통하다』, 국립한글박물관, 2020, 14~34쪽.
- _____, 「만주 망명가사 <해도교거사>의 새로운 이본(異本) 자료 소개」, 『우리문학연구』 67, 우리문학회, 2020, 29~64쪽.
(DOI : 10.20864/skl.2020.07.67.29)
- _____, 「안동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락의 가사 <유산일록>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과 예술』 22,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7, 93~117쪽.
- 김순준, 「崔松雪堂 文學研究」,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 박춘우, 「규방가사(閨房歌辭)의 글쓰기 방법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백순철,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가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5~32쪽.
(DOI : 10.17329/kcbook.2009..28.001)
- _____,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은촌 조애영 가사의 문체와 여성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DOI : 10.17090/kcws.2011..22.339)
- _____, 「崔松雪堂 歌辭의 문체와 현실인식」, 『한국시가문화연구』 15,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05, 339~374쪽.
- _____,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 성호경·서해란, 「만주 망명 여성가사 <해도교거사>·<정화가>와 <정화답가>」, 『한국시가연구』 제46집, 한국시가학회, 2019, 165~205쪽.
(DOI : 10.32428/poetry.46..201901.165)
- 손애화,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놀이 기반 규방가사의 여성놀이문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손중화, 「개화기 근대교육에 대한 영남유림의 저항과 수용」, 『교육철학』 17, 한국교육철학회, 1999, 107~145쪽.

- 원종인, 「서사적 규방가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경자·김은혜, 「안동지역 근대교육의 전개양상-협동학교(協東學校)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75~98쪽.
(DOI : 10.17790/kors.2021.12.79.75)
- 이계형, 「1910년대 전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안동 혁신유림의 역할」, 『만주 연구』 33, 만주학회, 2022, 47~87쪽.
(DOI : 10.22888/mcsa..33.202204.47)
- _____, 「한말 안동지역 혁신 유림과 신민회의 상관성 연구」, 『한국근대사연구』 103, 한국근현대사학회, 2022, 7~34쪽.
- 이상보, 「명도자탄사 소고」, 『명지어문학』 8, 명지어문학회, 1976, 188~191쪽.
-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기〉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0, 37~51쪽.
- 이은화, 「계남가사(溪南歌辭)를 통해 본 경북 내방가사의 향유 양상과 그 의미」, 안 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내방가사의 향유자연구』, 박이정, 1999.
- 이종숙, 「내방가사 연구 II-영주·봉화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문 화연구원 논총』 17, 1971, 117~144쪽.
- _____, 「내방가사 연구 I-영주·봉화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15, 1970, 53~86쪽.
-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 정기선, 「내방가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제1회 한국국학자대회 자료집, 2023. 10.
- _____,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22.
- 정길자, 『閨房歌辭의 史的 展開와 女性意識의 變貌』,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정재호, 「女孫訓辭考」, 『한국가사문학론』, 1982, 204~215쪽.
- 정철진, 「소정 이휘 가사 연구: -수고본(手稿本)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2.
- 조운제, 「영남여성과 그 문학-특히 가사문학(歌詞文學)에 관하여」, 『신흥』 6, 신흥

- 사, 1932.
- _____,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 조자현,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현실 및 세계인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진동혁, 「공인 남원윤씨의 명도자탄사 연구」, 『논문집』 19, 단국대학교, 1985, 7~36쪽.
- 최연(츠예),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한경희, 「경북 북부지역 근대문학자들의 유학전통의 사유와 신념의 변화양상」, 『정신문화연구』 32(3)(통권 11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59~384쪽.
(DOI : 10.25024/ksq.32.3.200909.359)
- _____, 「김우락 가사 고찰」, 『한국지역문학연구』 11(1), 한국지역문학회, 2022, 171~197쪽.
- 한명, 「閨房歌辭의 形成과 變貌樣相 研究」,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허희수, 「장편규방가사의 서사적 양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Abstract |

A Reading of Naebanggasa through ‘Family’ and ‘Local’

Paik, Sun-chul
Daegu Univ. Prof.

This article focuses on the keywords ‘Family’ and ‘Local’ as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reading of Naebanggasa. First, the family is divided into the ‘family of origin’ before marriage and the ‘derivational family’ after marriage, and the various perceptions and appearances from the woman’s perspective, the family’s perspective are broadly divided into three aspects. We looked into it separately.

First, in Naebanggasa, families constantly remind women of their identity as family managers, or the women themselves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family managers. Here, the ‘family of origin’ mainly appears as a relationship of emotional support and solidarity, and the ‘derivational family’ mainly appears as a relationship that evokes responsibility and roles. Second, in Naebanggasa, they constantly summons his family and expresses their feelings and memories about them. The main target, ‘family of origin’, is becoming a driving force for self-comfort and inner control. Third, objects in which emotion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criticism and warmth compete and collide appear in Naebanggasa. These are mainly ‘derivational families’ and show an ambivalent and mixed appearance.

Next, attention was paid to Gyeongbuk Province and Andong. This is because, in addition to its meaning as a local for the production and enjoyment of Naebanggasa, there are appearances that make us reflect on our attitude toward understanding traditional order and Confucianism as being on the opposite side of modernity and enlightenment. In particular, the resolute attitude of overcoming reality and the wise attitude of responding to the times shown by Naebanggasa writer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modern times through the enlightenment and modern times were new.

It occurred to me that Confucianism and traditional ethics, which were sometimes an oppression and bondage to them, could be seen as contributing to some extent in turning women into enlightened intellectuals and the subjects of enlightenment. Focusing on major female writers in the Andong and

Gyeongbuk Province, their strong patriotism and national consciousness were confirmed through their actions and achievements. We also looked at the amazing innovations and reforms that this local show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modern history.

Key words : Naebanggasa, family, Family-of-Origin, derivational family, Local, Gyeongbuk province, Andong,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Yurim), Modern